

Research Article

Effects of Daily Life Dysfunction caused by COVID-19 of Social Workers on Depression: Mediating Effects of COVID-19 Stress

Myeong Sook Yoon, Yoseb Ki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daily life dysfunction(social, occupational, family life) caused by the COVID-19 on depression experienced by social workers who deliver social welfare service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COVID-19 stress. The study subject were 932 social workers from 50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Jeollabuk-do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8 to September 30, 2020. The data analysis was done by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workers under COVID-19 had a high degree of interference in social/leisure activities, family life functions and occupational functions, and the level of experience in corona stress was also high. Second, the risk group of depression among social workers was more than five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public and in particular, the risk of depression among female social workers and social workers in residential facilities were higher. Third,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daily life dysfunction caused by COVID-19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ression and in this relationship, COVID-19 stress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practical and political suggestion to enhance mental health of social workers in the practice field under the COVID-19 situation.

Keywords : COVID-19, social worker, daily life dysfunction, depression, COVID-19 stress

I. 서론

우리 사회의 복지 욕구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사회복지 분야의 급속한 복지서비스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수반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역할갈등, 클라이언트 폭력, 정신건강, 인권 및 처우 관련 문제들이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Kim and Sung, 2013; Park and Yoon, 2011; Yoon and Kim, 2016).

특히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감염병으로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여가생활, 직업생활, 가정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19, 조류 독감, 메르스 감염병, 구제역, 태풍, 홍수, 지진, 대형 화재 사건, 총격사건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와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약물 남용,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다(Bauwens and Tosone, 2010; Evan, Giosan, Patt and Difiede, 2006; Kim and Park, 2017). 재난은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복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재난 지원 전문가, 가족, 사회에 장기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Kwon, Kim, Choi, Kim, Kim, Song and Eun, 2017).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 재난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발생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폭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일선현장에 종사하는 코로나 19 의료진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중심 직무특성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의 기능과 정신건강은 코로나 19의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주로 물리적인 피해나 의료적 피해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으며, 실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발생에 대한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선례에 근거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이다(Dominelli, 2015; Ha, 2018).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은 주요한 외상사건이기 때문에, 대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감정노동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발생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정신건강은 발생 원인이 무엇

이든지 간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및 사회복지사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기능, 스트레스,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개인적 차원의 연령, 학력, 직업경력 등과 근무시간, 과업 속도 및 강도, 업무수행 정도와 같은 직업적 차원, 조직문화, 조직 내 위계질서 등과 같은 조직문화, 개인적 탄력성, 사회적, 여가 기능 등이 사회복지사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dwards, Hannigan, Fothergill and Burnard, 2002; Moon, 2014; Yoon, Kim and Park, 2015).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과 같은 직무수행 중의 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Chang, Bae and Shin, 2013; Choi and Park, 2015; Shin and Lee, 2015). 우리나라 메르스 감염병 유행당시 개입했던 병원종사자, 간호사 등의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을 다룬 연구들(Kim, Kim, Choi, Jung, Kwon, Kim, Kim and Eun, 2019; Kim and Park, 2017; Kwon et al., 2017)은 소수가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사들의 직업적, 가정적, 사회적 기능 및 스트레스, 우울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재난관련 사회복지영역에서 수행된 연구는 재난 후 노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연구(Song, Park and Choi, 2020), 재난피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Song and Kim, 2019), 재난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분석 연구(Moon, 2020),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실천경험(Ha, 2018) 등이 수행되어, 선행연구 대다수가 재난 피해자와 재난관리체계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파생된 클라이언트들의 경제적 불안정, 실직, 사회적 관계망 축소, 클라이언트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의 가중, 불안, 공포, 두려움, 우울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들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이차적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STS) 발생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이 거주시설, 이용시설인가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부담이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재난을 많이 경험한 국가들은 재난 발생 전, 재난발생 동안, 재난 발생 이후에 재난 전문 직종들과 함께 정책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개입을 통한 심리사회적 문제에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있다(Choi, Byun and Kim, 2020; Dominelli,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직업적, 사회적, 여가, 가정생활 기능의 방해(손상)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급격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져온 코로나 19라는 재해가 사회복지사들의 기능을 방해하는 정도와 우울의 관계, 코로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고찰

1. 사회복지사의 기능방해와 우울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1인 가족 증가 등 인구 사회적 변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다양한 공공, 민간 영역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 부담, 직무 역할 및 담당업무의 질, 가족 및 동료관계, 개인적 성격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정신건강의 영향은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loyd, King and Chenoweth, 2002; Vyas and Luk, 2010). 지난 2014년 세월호 재난 개입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정체성의 갈등을 소개한 연구(Ha, 2018)와 미국의 9.11 사태에서 활동했던 재난전문가들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Evans et al., 2006)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경험한 사회복지사 및 재난전문가들의 사회적·직업적 기능손상 정도는 분노, 스트레스, 우울문제 발생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능 및 동료들 간의 관계, 가족관계와 같은 요인들은 소방직들이 경험하는 죄의식, 무기력감, 스트레스, 우울 발생에 매우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gehr, Hill, Kott and Sault, 2003).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역할갈등이 심할수록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만, 대인 관계망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였다(Kim and Sung, 2013). 사회복지사의 역할보호성, 역할갈등, 역할과다 모두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11).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특성상 지속적인 감정노동에 종사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노동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 소진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 and Kim, 2016).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에 의한 일상생활 기능방해 정도를 조사한 연구(KSTSS, 2020)에 의하면, 직업방해 4.40, 사회/여가활동 방해 6.03, 가정생활 방해 4.11로 나타나, 우리 국민들은 여러 일상생활 기능영역들 중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여가기능 방해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여가기능 방해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직무갈등, 역할갈등 등의 사회복지직의 스트레스를 완화, 조절해주는 사회적 지지기능의 약화와 업무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여가기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복지사의 직무역할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Jin, 2009)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직무역할, 직무만족에 사회적 지원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사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복지사들의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아직 없으나, 유사한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피해 연구에 의하면(Lemieux, Simon, Plummer, Al and Richardson, 2010), 재난 피해지역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재난 스트레스 경험 이후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하는 비율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구대상자들 중 6%는 PTSD와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감염병에 따른 병원종사자와 일반인의 스트레스 정도와 사회심리적 건강을 비교분석한 연구(Kwon et al., 2017)에 의하면, 병원종사자와 일반 간의 스트레스 정도나 사회심리적 건강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건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감염 유행 후 상급병원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수준은 폭력경험 간호사나 외상환자 수술에 참여한 수술실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보다 낮게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 후 간호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 환자를 만난 경험, 책임간호사 이상의 직위, 교대근무로 나타났다.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재난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애도치료, 집단 역동성, 가족 역동성, 위기 개입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능력의 소유 정도가 재난사태 개입 이후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g, 2012). 또한 구제역 피해를 경험한 지역 농민들이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

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Peck, 2005), 태안 허베이 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7-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우울 위험군이 24.4%에 달하고, 자살생각 비율이 8.9%로 높게 나타났다(Sohn, 2008). 구제역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경우, 구제역 방역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우울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Kim and Hyun, 2012), 구제역 방역이라는 재난대처상황에 노출된 대상자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을 3년간 추적한 연구(Cho, Jeon, Yoo and Um, 2005)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심리적 외상을 적게 경험한 경우, 남한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경우에 우울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와 일반 성인의 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Ahn and Yang, 2016)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 성인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와 보수 만족이 직무 만족을 매개해서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Jaegal and Kim, 2017). 사회복지사의 직무 역할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지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 역할 스트레스의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Jin, 2009). 사회복지사의 우울 관련 연구(Siebert, 2004)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19%가 우울증 초기 증세를 보이고, 20%가 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우울증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우울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직무수행, 개인적 외상 경험 등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 Yoon and Kim의 연구(2016)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과의 대면관계를 통하여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회복지사 기능방해, 스트레스, 우울의 관계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방해는 재난구호 종사자의 스트레스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vans, Patt, Giosan, Spielman and Difiede, 2009). 실제로 긴급출동서비스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Shakespeare-Finch, Smith, and Obst, 2002)에 의하면, 업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직업적, 가족적 기능의 손상은 스트레스 및

우울 증상의 발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상황에서 경험하는 외상으로 인하여 직업적, 사회적, 가족적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고, 이러한 기능손상이 스트레스, 우울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dams, Boscarino and Figley, 2006). 또한 외상생존자들과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갈등과 업무 부담이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ark and Yoon, 2011),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의 부적절성, 직장문화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Kim and Sung, 2013). 또한 직무수행과정에서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스트레스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5). Tennant(2001)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경험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적 관계의 질과 기능은 사회복지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복지사들의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et al., 2015).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Chang et al., 2013), Cunningham(2003)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한 방해와 이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경험, 가족 및 동료의 지지수준, 사회적 지지수준이 우울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 전문 치료자들에 대한 연구(MacRitchie and Leibowitz, 2010)결과, 트라우마 전문 치료자들은 업무나 기능수행 과정에서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 및 정신건강 문제 발생에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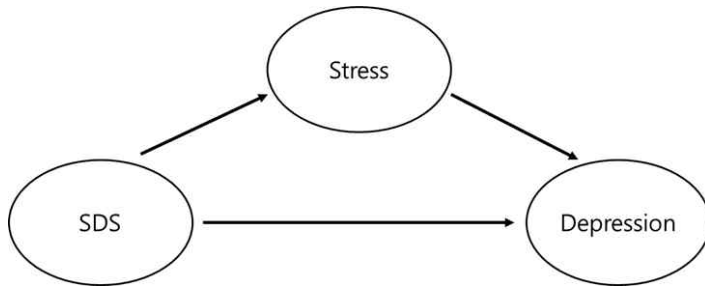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일상생활 기능방해가 코로나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즉, 일상생활 기능방해를 독립변수로, 스트레스를 매개변수로, 우울을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사회복지사의 일상생활 기능방해는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스트레스는 사회복지사의 일상생활 기능방해와 우울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Figure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이며, 대상자 수는 G*Power 3.19.7를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산출하였다(Faul et al., 2009). 선행 다중회귀분석의 효과크기 .15,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를 유지하고 예측변수로 일상생활 기능방해 3개, 코로나 스트레스 2개로 총 5개를 지정하여 표본 수를 산정한 결과 138명이었다. 최소 표본 수를 고려하되, 최대 표집을 하기 위하여 전북 사회복지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전라북도 사회복지 기관 4,240개소 중 영역별(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 지역복지관 등), 지역별(14개 시·군), 시설유형별(거주, 이용시설)로 할당하여 50개소를 표집하였다. 해당 기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설문을 2020.7.28.-9.30일 실시하였다. 총 1000부를 배부하여 설문에 응답한 93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방법, 대상자 선정에 대해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2020-08-004-002) 절차를 거쳤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우울(PHQ-9)척도는 정신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Spitzer et al.(1999)에 의해 개발되었고,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Park, Choi, Choi, Kim and Hong, 2010)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PHQ-9는 간결하며 민감도와 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우울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PHQ-9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며, 지난 2주 동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와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었는지 발생빈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 0점부터 ‘거의 매일’ 3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가된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27점이며, 0-4점은 이상 없음, 5-9점은 가벼운 우울, 10-19점 중간 우울증, 20점 이상은 심한 우울증으로 분류된다. 10점이 절단점으로 10점 이상은 우울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연구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에서는 9문항 전체의 절단점을 이용한 분석을 사용하였으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낮은 9번 항목을 제외한 8문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PHQ-9 척도가 단일 요인으로 분석되어 측정 변수의 요인 부하량이 유사하도록 3개의 문항 꾸러미(1요인: 1,2,3번 문항, 2요인: 4,5,6번 문항, 3요인: 7,8번 문항)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6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일상생활 기능방해(손상) 척도는 Sheehan(1983)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Park and Kim(2010)의 한국판 Sheehan Disability Scale(SDS) 척도를 사용하였다. SDS척도는 직업적, 사회적/여가, 가족생활 3영역의 기능이 방해받은 정도를 측정하는 각 3문항으로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서, 사용이 간편하고 내적 일치도와 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직업, 사회/여가, 가정생활 기능 방해 정도를 질문하였으며, 척도의 범위는 0점부터 10점까지 11단계로 나누어지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기능방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39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스트레스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코로나 19 상황에 맞게 개인, 가족, 직업, 경제적, 지역사회, 방송, 법적 논쟁 등 15문항으로 개발한 KSTSS(202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는 각 문항 당 ‘0’ 전혀 없음~‘10’ 매우 많이 로 분류하며,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50점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일상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척도의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법을 사용한 가중되지 않는 최소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1요인: 1,2,3,4,5,6,7,8,9,10번 문항, 2요인: 11,12,13,14,15번 문항)구조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57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 for Windows와 Amos 22.0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둘째, 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일상생활 기능 방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e Equation Model: SEM)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상생활 기능 방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코로나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즉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기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932명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63.7%(594명), 남성 36.3%(338명)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35.1%), 50대 이상(30.5%), 30대

(24.0%) 순서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기관 근무 기간은 1-5년 (28.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유형은 이용시설(59.5%), 거주시설 (35.2%)로 나타났다. 지역은 농촌 지역(75.0%), 도시지역 (25.0%)로 농촌 지역 사회복지기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932)

		n	%
Gender	Male	338	36.3
	Female	594	63.7
Age	20-29	97	10.4
	30-39	224	24.0
	40-49	327	35.1
	50 +	284	30.5
	< 1 year	65	7.0
Duration of service	1-5 year	268	28.8
	6-10 year	236	25.3
	11-15 year	190	20.4
	16-20 year	109	11.7
	> 21 years	64	6.9
Agency type	Facility for use	555	59.5
	Residential facility	328	35.2
	other	49	5.3
Area	Urban	233	25.0
	Rural	699	75.0

2. 주요변수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는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일상생활(직업, 사회, 가정생활) 기능방해(SDS) 평균은 0~10점 범위에서 5.44(SD=2.62)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스트레스 평균은 0~10점 범위에서 3.70(SD=2.39)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일척도를 사용하여 유사한 기간에 조사한 KSTSS(2020)의 일상생활 방해 평균점수 5.32점 보다 다소 높으며, 코로나 스트레스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일반인에 비해 전체적으로 3배 가량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기능방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생활(6.62)에서 가장 많은 방해를 받고 있으며, 가족생활 방해(4.99), 직장생활방해(4.72)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의 우울 총합 평균은 0~27점 범위에서 5.38(SD=5.81)로 나타났으며, 관측 변인들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아 각 변수별로 단변량 정규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상생활 기능방해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와 같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생활 방해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직업기능방해, 사회생활 기능방해, 가족생활 기능방해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분석(Scheffe) 결과 20~30대가 50~60대 집단보다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기능방해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30대가 직장에서 실무자로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의 부모 역할 제한으로 인해 코로나 19에 따른 기능방해를 가장 크게 인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시설유형에서는 이용시설 사회복지사가 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에 비해 직업방해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시설 특성상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증가 등 대면 서비스에 제한을 받는 것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SDS	Total	5.44	2.62	0	10	-.371	-.646
	Work	4.72	3.10	0	10	.015	-1.145
	Social	6.62	2.94	0	10	-.778	-.361
	Family	4.99	3.00	0	10	-.166	-1.002
	Stress	3.70	2.39	0	10	.415	-.635
Depression		5.38	5.81	0	27	1.340	1.554

<Table 3> SDS variance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N	Work	Social	Family
			M(SD)	M(SD)	M(SD)
Gender	Male	338	4.65(3.09)	6.27(3.09)	4.75(3.01)
	Female	594	4.76(3.11)	6.82(2.83)	5.12(2.99)
	t		-.522	-2.665**	-1.794
Age	20's(a)	97	4.92(2.90)	7.25(2.83)	4.74(2.84)
	30's(b)	224	5.53(2.96)	7.33(2.57)	5.54(3.03)
	40's(c)	327	4.76(3.02)	6.65(2.82)	5.25(2.90)
	50+(d)	284	3.98(3.21)	5.80(3.18)	4.34(3.04)
	F		11.055*** b>c>d	13.780*** a>d, b>c>d	8.615*** b>c>d
Agency type	Facility for use(a)	555	5.04(3.08)	6.65(2.86)	4.99(2.95)
	Residential facility(b)	328	4.24(3.09)	6.55(3.09)	4.92(3.12)
	other(c)	49	4.39(3.09)	6.85(2.78)	5.49(2.77)
	F		7.145** a>b	.234	.773
Ares	Urban	233	4.64(3.15)	6.38(3.11)	4.69(3.14)
	Rural	699	4.75(3.09)	6.70(2.88)	5.09(2.95)
	t		-.506	-1.424	-1.717

*p<.05, **p<.01, ***p<.001

연구대상자들의 우울 수준은 정상, 가벼운 수준, 중간수준, 심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울의 임상적 진단을 위해 ‘가벼운 우울’을 구분하는 절단점은 9점 이하,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우울’의 절단점은 1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한 Park et al(2010)의 연구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나타난 사회복지사의 우울 수준은 Table 4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 중 19.0%(177명) 가 우울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척도를 사용한 Community Health Survey(2018)의 우울 위험군 3.79% 대비 5배, 사회복지사와 유사하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인 방문간호사 대상 Kim(2020)의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 위험군 6.6%,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Shin and Kim(2019)의 연구결과 9.5%, 소방공무원의 우울을 측정한 Yoon and Kim(2014) 연구에서 나타난 15.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사회복지사들의 우울은 성별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사회복지사

(15.1%)에 비해 여성 사회복지사가(21.2%) 우울 위험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지역(14.6%)에 비해 농촌 지역의 사회복지사가(20.5%) 우울 위험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pression status of subjects

		N	%
0-4 score	Normal	504	54.1
5-9 score	Mild	251	26.9
10-19 score	Medium	146	15.7
>20 scorer	Severe	31	3.3
	Total	932	100

<Table 5> Depression statu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Mild depression(<9) N(%)	depression(>10) N(%)	χ^2
Gender	Male	287(84.9)	5.250*
	Female	468(78.8)	
Age	20's	76(78.4)	4.465
	30's	175(78.1)	
	40's	263(80.4)	
	50+	241(84.9)	
	Facility for use	444(80.0)	
Agency type	Residential facility	271(82.6)	.934
	other	40(81.6)	
	Urban	199(85.4)	
Area	Rural	556(79.5)	3.908*
		143(20.5)	

*p<.05, **p<.01, ***p<.001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결과 .80 이상의 높은 상관으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분산팽창지수(VIF)와 Durbin-Watson 값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산팽창지수가 1.431~2.191로 10을 넘지 않고, Durbin-Watson 값도 1.880으로 2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ong, 2008).

<Table 6> Correlation of variables

Variable	Depression	Work SDS	Social SDS	Family SDS	Stress
Depression	1				
Work SDS	.411***	1			
Social SDS	.359***	.643***	1		
Family SDS	.345***	.599***	.667***	1	
Stress	.539***	.608***	.555***	.626***	1

*p<.05, **p<.01, ***p<.001

3.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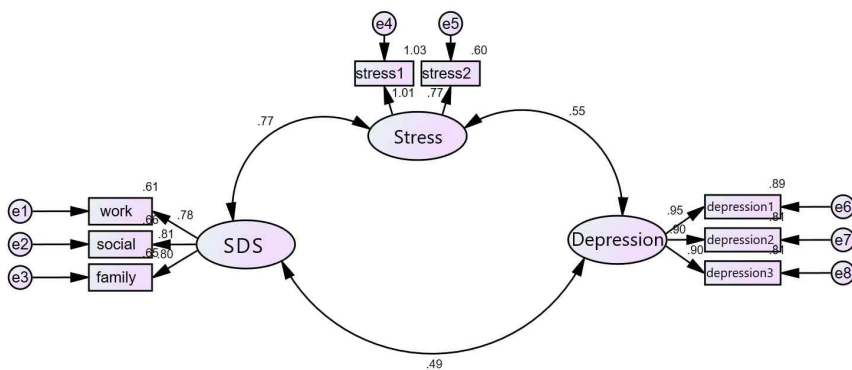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 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우울 척도에서 요인적재량이 낮은 우울 9번 항목을 제외한 8문항을 분석하였으며, 측정 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유사하도록 3개의 문항 꾸러미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분석결과 $\chi^2=94.312(df=17)$, $p<.001$ 로, χ^2 통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적합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χ^2 통계량은 표본 수 및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 왜곡추정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GFI, CFI, RMSEA, SRMR의 적합도를 함께 확인하였다. 그 결과 GFI=.977, CFI=.986, RMSEA=.070, SRMR=.027로 이들 지수 모두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모형과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잠재변수에서 측정 변수에 이르는 경로의 표준화 계

수는 .773 ~ 1.013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Figure 2, Table 7과 같다.

<Table 7> Model estimates and goodness of fit indices in the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B	β	SE	C.R
SDS	Work SDS	1.000	.781		
	Social/Recreational SDS	.982	.810	.039	24.869***
	Family life SDS	.996	.804	.040	24.674***
Stress	Stress1	1.000	1.013		
	Stress2	.796	.773	.028	28.404***
Depression	Depression1	1.000	.946		
	Depression2	.955	.902	.020	46.991***
	Depression3	.892	.898	.019	46.485***

* $p < .05$, ** $p < .01$, *** $p < .001$



[Figure 2] Measurement model

4. 구조모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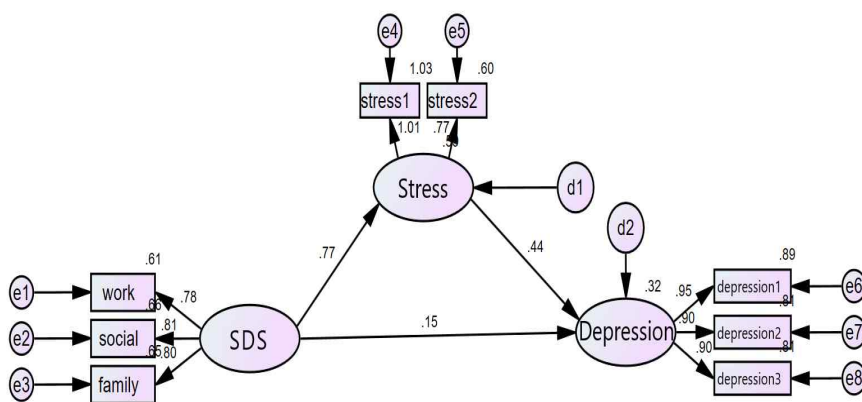
본 연구모형의 직접 경로가 유의미한지를 모두 추정치인 경로계수와 표준오차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

94.312(df=17),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적합도 지표들이 $GFI=.977$, $CFI=.986$, $RMSEA=.070$, $SRMR=.027$ 등으로, 필요한 요구적합도를 충족시켰으며 경로계수는 Figure 3,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기능방해가 스트레스에 이르는 경로의 값은 표준화 계수가 .766으로 일상생활 기능방해가 커질수록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냈다($p<.001$). 또 스트레스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도 표준화 계수가 .442로 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Table 8> Estimated of the full SEM model

	path	B	β	SE	C.R	SMC
SDS	→ Stress	.795	.766	.033	23.784***	.587
Stress	→ Depression	.249	.442	.031	8.043***	.317
SDS	→ Depression	.086	.147	.033	2.610**	

* $p<.05$, ** $p<.01$, *** $p<.001$



[Figure 3] Structural model

5. 매개효과 분석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기능방해와 우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매개효과 유의검증 방법인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분석한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는 Table 9과 같다. 사회복지사의 방해와 우울 간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총 효과가 .486, 직접효과가 .147, 간접효과가 .339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사회복지사의 일상생활 기능방해와 우울을 부분 매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9> Estimates of structural model

Path	Total	Direct	Indirect	95% C.I	
				lower	upper
SDS-Stress	.486	.147	.339	.268	.417**

*p<.05, **p<.01, ***p<.001

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증가하는 복지 욕구에 맞추어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93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에 기인한 직업적, 사회적, 가족적 영역의 일상생활 기능방해정도와 우울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들의 일상생활 기능방해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기능방해의 경우 동일척도를 사용하여 유사한 기간에 조사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KSTSS)(2020)의 3차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일상생활 기능방해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스트레스의 경우 동일 학회의 조사결과보다 전체적으로 3배가량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직업적, 가족적 기능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들(Edwards et al., 2002; Evans et

al., 2006; Jin, 2009; Kim and Sung, 2013; Lemieux et al., 2010; Yoon et al., 2015)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우울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울증 위험군이 19.0%로 나타나, 동일척도를 이용한 일반국민 조사결과나, 유사한 대민서비스 직군인 방문간호사 대상 (Kim, 2020) 연구, 경찰관 대상 연구(Shin and Kim, 2019), 소방공무원(Yoon and Kim, 2014)연구보다 약 1.5~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와 유사하게 직접적인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방문간호사, 경찰관, 소방공무원 직군보다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의 우울 수준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심각하다는 선행연구결과들 (Peck, 2005; Yoon et al., 2015)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우울 문제에 대한 전문적 개입 프로그램 확산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일상생활 기능방해 정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사들의 직업적 감정노동, 직무특성, 개인적 트라우마, 사회적 지지 관계 등이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경찰 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Chang et al., 2013; Evans et al., 2009; Rogehr et al., 2003; Stephen and Long, 2000; Yoon and Kim, 2016)을 지지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우울에 일상생활 기능방해가 미치는 효과는 코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부분 매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 기능방해는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기능방해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직업적, 사회적, 가족적 기능 방해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직업적, 가족적으로 경험하는 기능의 방해 정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기능방해 정도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Ahn and Yang, 2016; Cho et al., 2005; Cunningham, 2003; Kim and Hyun, 2012; MacRitchie and Leibowitz, 2010)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높은 직업적, 사회적, 가족적 기능 방해(손상)정도, 높은 스트레스 경험비율이 나타난 것은 급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대외적으로 업무의 어려움을 인정받고 있는 의료진들과 달리,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감추어진 재난 업무 수행자로서 기존의 사회복지업무에 더하여 클라이언트의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야 하는 가중된 직무부담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높은 기능장애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적절한 사회의 관심과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 19상황에서 일반인들의 정신건강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들의 높은 기능손상과 스트레스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 소진, 이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사회복지사들의 가족적, 직업적, 사회적 기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기관 또는 거점형 전문 슈퍼비전 강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 강화, 가족 및 동료 관계 지원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시설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 많은 직무부담과 기능방해, 스트레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용시설의 경우 서비스 제공의 시간적 제한이 있으나 거주 시설의 경우 사실상 24시간 서비스가 연속되는 것으로, 거주 시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거주시설 내 휴게공간인 ‘회복실’ 구축, 휴가 및 힐링, 상담, 여가 지원 프로그램 제공, 적정 근무시간 산정 등 적절한 휴식 및 심리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실천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우울증 위험군이 일반 국민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유사한 대민서비스를 전달하는 경찰관이나 방문간호사, 소방공무원 직군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이다. 최근에 정부에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처벌하고, 소방공무원들에게 24시간 운영되는 심리치료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의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사들 역시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정신적 외상, 클라이언트 폭력, 코로나 복지 욕구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 등으로 정신건강의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19년 시작된 12개 지역사회복지협회가 시행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위기관리 프로그램’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우울은 단기간 회복되기도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개입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회복에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무엇보다 우울은 사회복지사 개인의 정신건강문제에 그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와의 업무수행, 사회적 관계, 소진, 자살, 가족갈등 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우울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과 적절한 심리사회적 개입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이 재난상황 등 사회복지 업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신속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심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기능, 스트레스, 정신건강의 문제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변화하는 정신건강 상태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횡단 연구에 그친 점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둘째, 사회복지 영역이 매우 방대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등으로 구분은 하였으나, 영역별 업무수행 강도의 수준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면밀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복지사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의 원인의 다양함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밀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직역별, 영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대해 직업, 사회생활, 가족생활 영역별로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요인들과 정신건강의 변화를 시계열변수를 고려하여 종단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dams, R. E., J.A. Boscarino, and C.R. Figley. 2006. "Compassion fatigue and psychological stress among social worke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 103-108.
- Ahn, Byum Hyun and Min Ok Yang. 2016.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and resilience of social workers and ordinary peopl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2(2):57-81.
- Bauwens, J. and C. Tosone. 2010. "Professional growth after a shard traumatic experience: Manhattan clinicians' perspectives on post-9/11 practice." *Journal of Loss and Trauma* 15: 498-517.
- Chang, Kyung Eun, Ki Hyo Bae, and Ji Yeun Shin. 2013. "The impact of job stress on depression of social worker: Focu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frontline social worker and managing social worker."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3(2): 1-23.

- Cho, Young A, Woo Taek Jeon, Jung Ja Yoo, and Jin Sup Um. 2005.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 3 year follow up stud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467-484.
- Choi, Soo Chan, Sang A kim, Young Hye Hur, and Woong Sub Park. 2008. "The effects of work conditions on job stress of social workers."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33(2): 221-231.
- Choi, Eun Jeung, Jeong Nam Yang, and Sun Hee Park. 2015. "A study on stress, depress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social workers who experienced client viole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tr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3(1): 83-110.
- Choi, Ji Kyung, Kyu Ri Byun, and Sang Im Kim. 2020. "Role of social welfare in disasters: Focused on exosystem of ecological theory."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31(3): 191-207.
- Choi, Hee Chul. 2011. "The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on social workers' job stress role factors and job involvement relations." *Church Social Work* 15: 7-43.
- Cunningham, M. 2003. "Impact of trauma work on social work clinicians: Empirical findings." *Social Work* 48(4): 451-459.
- Dominelli, L. 2015.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social work interventions in disaster situations." *International Social Work* 58(5): 659-672.
- Edwards, D., B. Hannigan,, A. Fothergill, and P. Burnard. 2002. "Stress management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 review of effective techniques." *Stress and Health* 18(5): 203-215.
- Evan, S., C.Giosan, I. Patt,, L.Spielman , and J. Difede. 2006. "Anger and it's association to distress and social/occupational functioning in symptomatic disaster relief workers responding to the September 11, 2001, World Trade Center Disast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1): 147-152.
- Evan, S., I. Patt, C. Giosan,, L.Spielman, and J. Difede. 2006. "Disability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disaster relief workers responding to September 11, 2001, World Trade Center Disast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5(7): 684-694.
- Faul, F., E. Erdfelder,A. Buchner, and A.-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 Ha, Jung Mi. 2018. "Baby ducking walking in the storm: Sewol Perry, the social worker's role and identity of disasters, focusing on disaster intervention experience."

- Presentation paper at the Korean Society of Social Welfare Spring Conference.. pp. 941-984.
- Han, So Jeong and Mi Jeong Park. 2018. "A study on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who worked in a trauma center: The case of Ansan Onmaum Cente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4): 476-509.
- Jin, Yu Sil. 2009. "The study of the effect on work satisfaction for the social worker's stress and the control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9: 31-55.
- Kang, Mi Kyung and Goo Hun Jeon. 2016. "A case study on community welfare center network for social disaster response together." Presentation paper at the Korean Society of Social Welfare Spring Conference. pp. 178-223.
- Kim, Kwang Byung. 2016. "Guaranteeing treatment and status for practitioner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7(2):33-52.
- Kim, Shinil, Taehung Kim, Malrye Choi, Joori Jeong, Hyukmin Kwon, Hyoungwook Kim, Byoungjo Kim, and Hunjeong Eun. 2019. "Influence of fear about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vent of hospital worker and general public on socio-psychological health." *Anxiety and Mood* 15(1): 45-52.
- Kim, Jeon Eun and Heeja Sung. 2013. "The impact of job stress on mental health of social workers: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6(1): 187-213.
- Kim, Hyun Jin. and Ho Ran Park. 2017.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Stress of general hospital nurses after the epidemic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fectio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3(2): 179-188.
- Kim, Hee Guk and Jin Hee Hyun. 2012. "PTSD and depression of government officials who worked in front line during Foot-and Mouth Disease epidemic." *Mental Health & Social Work* 40(4): 205-229.
-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KSTSS). 2020. *COVID-19, The 2nd survey on the mental health of Korea*. Seoul.
- Kwon, Hyuk Min, Tae Kyung Kim, Mal Rye Choi, Byoung Jo Kim, Hyoung Wook Kim, Ok Sun Song and Hun Jeong Eun. 2017. "The effects of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vent on the psychosocial wellbeing of healthcare workers and the public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25(2): 111-119.
- Lemieux, C. M., C. E. Simon, C.A. Plummer, and R. Richardson. 2010. "Mental health, substance use, and adaptive coping among social work students in the aftermath of

- Hurricanes Katrina and Rita.”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8(3): 391-410.
- Lloyd, C., King, R., and L. Chenoweth. 2002. “Social work, stress and burnout: A review.” *Journal of Mental Health* 11(3): 255-265.
- MacRitchie, V. and S. Liebowiz. 2010. “Secondary traumatic stress, level of exposure, empathy and social support in trauma worker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40(2): 149-158.
- Moon, Young Joo. 2014.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in employee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ory”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6 (3): 283-315.
- Moon, Young Joo. 2020. “A needs analysis of social workers in Bus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of metro and basic local governm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51(1): 237-274.
- Ng, G. T. 2012. “Disaster work in China: Tasks and competences for social wokers.” *Social Work Education* 31(5): 538-556.
- Park, Jun Young and Ji Hae Kim. 2010. “Korean version of the Sheehan Disability Scale(SD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1): 73-81.
- Park, Seung Jin, Hye Ra Choi, Ji Hye Choi, Kun Woo Kim, and Jin Pyo Hong.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 *Anxiety and Mood* 6(2):119-124.
- Park, Yunmi and Hyemee Yoon.. 2011. “Influences of role conflict, workloa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self-efficacy on burnout of social workers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6: 289-322.
- Peck, D. 2005. “Foot and mouth outbreak: Lessons for mental health services.” *Advances in Psychiatric Treatment* 11: 270-276.
- Rawlands, A. 2013. “Disaster recovery management in Australia and the contribution of social work.” *Journal of Social Work in Disability & Rehabilitation* 12: 19-38.
- Rogehr, C., J.Hill,T. Kott, and B. Sault. 2003.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trauma in new recruits and experienced fire fighter.” *Stress and Health* 19: 189-193.
- Shin, Hes Jong and Hyuck Su Lee. 201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service workers’ job stress: Focusing on the employee benefi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53: 289-313.
- Sin, Sung Won and Seong Hwan Kim. 2019. “Survey of depression level of police officers.” Presenting paper at the conference of The Kora Contents Association. pp. 133-134.

- Siebert, D.D. 2004. “Depression in North Carolina social workers :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research.” *Social Work Research* 28(1): 30-40.
- Sohn, Jung Nam. 2008. “A study on PTSD, depression, anger, and suicidal ideation in victimized community residences after the Hebei Spirit Oil Spil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7(4): 411-420.
- Sung, Jung Sook and Man Jae Yang. 2016. “A review of international trends in social work practice for disaster: Disaster response social work practice model proposal and Sewolferry disaster.”. Presentation paper at the Korean Society of Social Welfare Spring Conference. pp. 255-281.
- Song, Youngji, Rosa Park, and Songsik Choi. 2020. “Effects of economic level,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elderly after disaster.”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1): 1113-1127.
- Song, Youngji and Saebom Kim. 2019.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women victims of disaster: Resilience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6): 557-571.
- Tennant, C. 2001. “Work-related stress and depressive disorder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 697-704.
- Yoon, Ki Woong, Don Jaegal and Byung Kyu Kim. 2017. “Explor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pay satisfaction on job satisfaction and job involvement among social worker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9(1): 141-166.
- Yoon, Myeong Sook and Sung Hye Kim. 2014.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between the relationship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among firefighte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2(2): 5-34.
- Yoon, Myeong Sook and Nam Hee Kim. 2016. “The moderating effect of client viol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depression among social workers.”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9(4): 187-221.
- Yoon, Myeong Sook, Sung Hye Kim, and A Ran Park. 2015. “The relationship of client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mental health social worker: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job str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3(2): 253-282.
- Vyas, L., and S. Luk. 2010. “Frazzled care for social workers in Hong Kong: Job stress circumstances and consequences.” *International Social Work* 54(6): 832-851.

(2020. 11. 15. 접수; 2020. 12. 15. 수정; 2020. 12. 29. 채택)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일상생활 기능방해 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윤명숙*·김요섭**

본 연구는 코로나 19 재난상황에서 증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공·민간 영역에서 전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한 일상생활 기능방해 정도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미치는 코로나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기관 4,240개소를 사회복지 영역별, 시설유형별로 할당 표집하여 선정한 전체 50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000명을 대상으로 2020.7.28.-8.30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병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응답한 932명의 자료를 SPSS 22.0 과 AMOS 22.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사회/여가활동 기능, 가정생활 기능, 직업기능의 방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 스트레스 경험수준이 일반인의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사들의 우울 위험군이 19.0%로 일반 국민 우울 위험군과 비교하여 5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성 사회복지사와 농촌지역 사회복지사의 우울 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 19로 인한 일상생활 기능방해 정도는 우울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관계에서 코로나 스트레스는 부분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경험하는 기능방해 및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우울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코로나 19, 사회복지사, 일상생활 기능방해, 우울, 코로나 스트레스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yoons64@jbnu.ac.kr. 주저자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kimyoseb7@daum.net. 교신저자.

*** <https://doi.org/10.33071/ssricb.44.4.202012.155>